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4월 30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AI 기반 디지털트랩으로 해충 예찰-11면 (2026.04.24.)	농업디지털센터	원예산업 신문
○	농기원 관비 재배 시비 기준 마련 추진-6면	친환경연구과	삼다일보
○	만감류 비료 과다 “오히려 작물 안 크다” -5면	친환경연구과	제민일보
○	섬쑥부쟁이 농약 등록 확대...안전 생산 강화 -3면	친환경연구과	제민일보
○	감귤전문지도연구회, 4월 과제교육-13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주간농사정보-10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농업·농촌 소식-13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가공용 농산물 생산·소비 상생모델-3면	-	제주일보
○	맑다가 비...변덕 날씨 지속-1면	-	제민일보
○	레드향 농가 한시름 놓았다..열과 피해보상-2면	-	제민일보
○	제주 마늘·양파 재배 줄었다-2면	-	제민일보
○	“수급 불안 예방” 주요 채소류 재배의향 조사-5면	-	제민일보
○	제주 월동무 홍수 출하 해소되나-6면	-	한라일보

(원예산업신문: 2026년 4월 24일)

○ AI 기반 디지털트랩으로 해충 예찰-11면

AI 기반 디지털트랩으로 해충 예찰

제주도 전역 82개소 195대 본격 운영



디지털트랩 설치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인공지능(AI)으로 해충 발생을 실시간 감지하는 디지털트랩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농업 디지털 기반 영농지원 시스템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로 복잡해지는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육안 판독 방식에 의존한 사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 기반의 예측·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디지털트랩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올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디지털트랩은 제주 전역 노지 감귤원과 발작물 재배지 82개 지점에 총 195대가 설치·운영되며, 11월 말까지 해충 발생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대상 해충은 총채벌레류, 노린재류, 나방류 등 주요 9종으로, AI 이미지 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분석이 이뤄진다.

수집된 데이터는 '제주DA 플랫폼'에 저장되며, 500m 간격의 정밀 기상정보와 결합해 해충 발생 위험도를 '보통·주의·경고·심각' 4단계로 제공한다. 농업인은 '제주DA' 앱을 통해 자신의 재배 환경에 맞는 방제 시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정상 kotopia70@원예산업신문11

4. 24.

원예산업신문11

(삼다일보: 2026년 4월 30일)

○ 농기원, 관비 재배 시비 기준 마련 추진-6면

농기원, 관비 재배 시비 기준 마련 추진

물과 함께 비료 공급하는 방식...비료 이용 효율 높이고 시비량 절감 효과

시설 만감류 재배에 비료가 과다 사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000년부터 도내 만감류 시설재배지 40개 지점을 대상으로 4년 주기 토양화학성을 조사한 결과 전기전도도(EC), 유효인산, 교환성양이온(칼륨·칼슘·마그네슘) 등이 지속 증가해 적정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때문에 토양 내 양분 집적이 심화하고 있다.

전기전도도(EC)는 2024년 기준 2.4dS/m로 시설재배지 적정 기준(2.0dS/m 이하)을 초과해 작물의 수분·양분 흡수 저해 등 생육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내 주요 시설 작물인 만감류에 화학비료, 퇴비, 유기질 비료가 표준 시비량보다 1.1~2.5배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재배지는 강우가 차단되고 고온으로 수분 증발량이 많아 비료 성분이 표토로 이동·축적되면서 염류 집적이 발

생하기 쉽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관비 재배 기반 정밀 양분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관비 재배는 물과 함께 비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작물 생육 단계에 맞춰 양분을 정밀하게 투입할 수 있어 비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시비량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시설 만감류를 대상으로 제주지역 토양 특성을 반영한 화산회토(토평)와 비화산회토(한림)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토양 시비와 관비 처리에 따른 질소 이용 효율과 작물의 수량·품질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관비 재배에 적합한 질소 시비 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원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감류 관비 재배 비료 사용 처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양 정보 시스템 '흙토람'에 등록·반영해 토양 검정 시비 처방서로 제공할 계획이다.

4.30 기자
삼다일보 6
tazan@samdaillbo.com

(제민일보: 2026년 4월 30일)

○ 만감류 비료 과다 “오히려 작물 안 크다” -5면

만감류 비료 과다 “오히려 작물 안 크다”

과잉 양분 현상 생육 부진 우려

도내 시설재배지 40곳 조사
표준 시비량보다 1.1~2.5배
도 농기원, 기술 개발 본격

도내 만감류 재배지에서 과도한 비료 사용으로 토양 내 과잉 양분 현상이 나타나며 생육 부진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제주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에 따르면, 2000년부터 도내 시설재배지 40곳을 대상으로 한 4년 주기 토양화학성 조사 결과,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 염류 축적량 지표인 '전기전도도(EC)'는 2024년 기준 2.4dS/m로 시설재배지 적정 기준(2.0dS/m 이하)을 초과했다.

유효인산, 교환성양이온(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성분도 지속 증가하며 토양 내 양분 집적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주요 시설 작물인 만감류는 화학비료, 퇴비, 유기질 비료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

표준 시비량보다 1.1~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재배지는 강우가 차단되고 고온으로 수분 증발량이 많아 비료 성분이 표토로 이동·축적되며 염류 집적이 발생하기 쉽다.

농기원은 비료 과다 사용과 토양

염류 집적 문제 해결을 위해 관비재배 기반 정밀 시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시설 만감류를 대상으로 제주 토양 특성을 반영해 토핑(화산회토)과 한림(비화산회토)에서 진행된다.

토양시비와 관비 처리에 따른 질소 이용 효율과 작물의 수량·품질 특성을 비교 분석해 관비재배에 적합한 질소 시비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감류 관비재배 비료 사용 처방 기준을 마련한다.

토양정보 시스템인 '흙토람'에도 반영해 토양검정 시비 처방서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농기원은 효율적인 양분관리를 위해 과실의 고품질을 유지하면서 시비량을 절감할 수 있는 관비재배 기반 정밀 양분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관비재배는 물과 함께 비료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작물 생육 단계에 맞춰 양분을 정밀하게 투입할 수 있어 비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시비량 절감에 효과적인 기술이다.

오민아 농업연구사는 “시설재배지 염류 집적은 작물의 양분 흡수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관비재배 기반 정밀 양분관리 기술을 통해 비료 사용량을 저감하면 생산이 이뤄질 4. 30. 안 정적인 생산이 이뤄질 제민일보 5 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은리 기자

(제민일보: 2026년 4월 30일)

○ 섬쑥부쟁이 농약 등록 확대...안전 생산 강화-3면

섬쑥부쟁이 농약 등록 확대...안전 생산 강화

5종 18개서 13종 78개로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섬쑥부쟁이'에 적용 가능한 농약 등록을 대폭 확대해 농산물 안전 생산 기반을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섬쑥부쟁이는 제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는 잎채소로 1980년대 후반 '취나물'로 알려지며 재배가 시작됐으며 현재 재배 면적은 약 110ha다.

하지만 섬쑥부쟁이에 등록된 농약이 부족해 농가에서는 농약 허용 기준강화제도를 위반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출하 전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농약직권 등록시험을 추진, 등록 농약을 확대 조치했다.

우선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취나물 잔류성 시험 결과를 섬쑥부쟁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을 개정, 잔류성 시험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농약 등록 소용 기간을 단축했다.

또 잔류성 시험 면제가 가능한 농약 41개 품목에 대해 약해 시험을 추진하고 섬쑥부쟁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기존 시들음병 등 5종 병해충에 18개 품목에 불과했던 등록 농약이 뿌리혹선충·목화진딧물 등을 포함한 13종 병해충 78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농약 등록 확대가 제주지역 특산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 소득과 농산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농약 등록 확대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시험연구를 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30.말
제민일보 3
섬쑥부쟁이

(제주매일: 2026년 4월 30일)

○ 감귤전문지도연구회, 4월 과제교육-13면




감귤전문지도연구회, 4월 과제교육

감귤전문지도연구회(회장 현상철)는 최근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및 감귤류 재배 현장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하반기 과제교육을 실시했다. 4. 30. 제주매일 13

(제민일보: 2026년 4월 30일)

○ 주간농사정보-10면

 <h3>주간농사정보</h3> <p>◆병해충 피해 확산 전 신속히 방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지감귤 ○ 시비관리: 꽃이 많은 나무 4월 하순~5월 상순 경 요소 10kg/10a 살포 □ 만감류 ○ 온도관리: (밭아~백화기) 주야간 온도차 한라봉 15도 내외, 그 외 10~12도 이내 ○ 물관리: (출퇴기~백화기) 3~5일 간격 10~15t/10a 관수 ○ 병해충관리: 총채벌레, 진딧물, 잎말이나방 등 예찰 후 초기방제 ※ 백화기 구리제+기계유유제(120배) 살포: 누른무늬병 예방 및 굴응애 방 	<p>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위 ○ 신초관리: 결과지 충실도에 맞춰 불필요한 어린순 제거 ○ 꽃봉리 솜기: 결과지 10cm 내외일 때 결과지 당 꽃봉오리 3~4개 남김 ○ 병해충관리: (꽃썩음병) 꽃 피기 20일 전부터 10일 간격 적용약제 3회 이내 살포 □ 초당옥수수 ○ 병해충 관리: 나방류 등 예찰 및 방제 - 나방류 유충 발생이 확인되면 해뜨기 전 적용약제를 줄기와 잎에 고르게 살포 ※ 알에서 부화한 초기 유충 단계에서 방제 효과가 가장 높음 □ 단호박 ○ 낮 기온 높아지면 터널 비닐을 뚫어 	<p>고온피해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 후 30일 경 터널비닐 제거, 줄기 유인, 1차 추비 실시 <p>◆표준시비 실천에 동참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시비란? 필지별 토양 양분상태를 분석(토양검정)하여 작물에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하는 것 ○ 표준시비 도입 실증사업 관행 대비 비료 사용량을 △양배추 43% △브로콜리 36% △양파 26% △마늘 53.2%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확량과 상품성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 ○ 마늘 실증사업 현장평가회: 5월 중순, 4. 30. 대정읍 일원(문의: 760-7531)
---	--	---

제민일보 10

(삼다일보: 2026년 4월 30일)

○ 농업·농촌 소식-13면

<h3>■ 농업·농촌 소식</h3>	
<p>병해충 예방의 시작은 철저한 예찰, 피해 확산 전 신속히 방제합시다</p>	
<p>▲노지감귤 △시비관리=꽃이 많은 나무 4월 하순~5월 상순 경 요소 10kg/10a 살포</p> <p>▲만감류 △온도 관리=(밭아~백화기) 주야간 온도차 한라봉 15도 내외, 그 외 10~12도 이내</p> <p>△물 관리=(출퇴기~백화기) 3~5일 간격 10~15t/10a 관수</p> <p>△병해충 관리=총채벌레, 진딧물, 잎말이나방 등 예찰 후 초기방제/백</p>	<p>화기 구리제+기계유유제(120배) 살포=누른무늬병 예방 및 굴응애 방제</p> <p>▲키위 △신초 관리=결과지 충실도에 맞춰 불필요한 어린순 제거</p> <p>△꽃봉리 솜기=결과지 10cm 내외일 때 결과지 당 꽃봉오리 3~4개 남김</p> <p>△병해충 관리=(꽃썩음병) 꽃 피기 20일 전부터 10일 간격 적용약제 3회 이내 살포</p> <p>▲초당옥수수</p>
	<p>△병해충 관리=나방류 등 예찰 및 방제/나방류 유충 발생이 확인되면 해뜨기 전 적용약제를 줄기와 잎에 고르게 살포/알에서 부화한 초기 유충 단계에서 방제 효과가 가장 높음</p> <p>▲단호박 △낮 기온 높아지면 터널 비닐을 뚫어 고온피해 예방</p> <p>△정식 후 30일 경 터널비닐 제거, 줄기 유인, 1차 추비 실시</p> <p>▲문의=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4. 30.</p>

삼다일보 13

(제주일보: 2026년 4월 30일)

○ 가공용 농산물 생산·소비 상생모델-3면

가공용 농산물 생산·소비 상생모델

제주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농업 체질 바꾸는 지속가능한 협력구조

제주 농업의 체질을 바꾸는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이 단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속사업으로, 제주도 식품산업과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은 매년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농가와 기업 간 상생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통해 제주 농업의 산업화를 견인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업은 크게 생산 지원과 이용 지원으로 구분된다. 생산 지원은 농산물을 '잘 만드는 것'에 집중한다면, 이용 지원은 '잘 팔리게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농업과 기업 간 단순 거래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든다.

먼저 생산 지원은 농가와 기업 간 계약재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가는 기업이 요구하는 품질과 규격에 맞춰 농산물을 생산하고, 기업은 일정 단가로 이를 안정적으로 구매한다. 이 과정에서 재배기술 표준화, 품질관리, 공동 선별 및 저장시설 확보, 물류체계 개선 등이 함께 지원된다.

이용 지원은 생산된 농산물이 실제 시장에서 소비로 이어지도록 돕는 단계다. 가공제품 개발, 레시피 4.30.장 디자인 개선, 브랜드 3.제주일보 3. 마케팅, 온·오프라인 판

로 개척 등이 포함된다.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상품성과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같은 지원 체계는 실제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거북농산 영농조합법인(대표 이두분)이다. 이 업체는 월동무를 중심으로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확대하며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한 대표적인 생산 지원 사례다.

계약재배·저장시설·수출까지 전방위 지원 확대 작년 4개 기업·35 농가 참여...매출 규모 성장 생산기반 확충·유통망 확대 등 성과로 이어져

거북농산은 현재 조합원 농가와 협력해 약 143만㎡ 규모의 계약재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간 약 1500t 이상의 농산물을 유통하고 있다. 가락시장과 식품회사 유통망은 물론 8개국 이상 해외 수출까지 판로를 넓히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격 변동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이다. 기존 농산물 시장은 시세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농가와 기업 모두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었다.

거북농산은 농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계약 단가를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소했다. 농가는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 집중할 수 있고, 기업은 일정한 가격과 품질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여기에 품질관리 인력 지원, 재

배기술 표준화, 공동 선별 및 저장 시설 운영까지 더해지면서 생산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이 동시에 개선됐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참여 농가를 기존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전용 저장창고를 임차해 출하하기 조절까지 가능해지면서 가격 안정 효과도 거뒀다.

계약재배 물량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22년 이후 본격적인 사업 참여를 계기로 매출 규모가 크게 성장하며 상생협력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도 사업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4건의 상생협력 모델이 발굴·지원됐으며, 참여 농가는 35호, 참여 기업은 4개소로

확대됐다. 기업별로 보면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제주시농협, 제주거북농산 등 주요 참여주체들이 각각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망 확대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냈다.

사업 운영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참여기업 공개 모집부터 선정 심의, 상·하반기 모니터링, 성과 점검, 사업비 정산까지 전 과정이 단계별로 이뤄진다.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점검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보하고 기업은 경쟁력 있는 원료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소비자는 품질이 검증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매년 축적되는 상생협력 사례를 통해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가공·유통·수출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제민일보: 2026년 4월 30일)

○ 맑다가 비...변덕 날씨 지속-1면

맑다가 비...변덕 날씨 지속

30일 늦은 오후까지 약한 비
1일 맑지만 강풍, 파고 2.5m

비와 맑음을 오가는 흐린날씨가 이어지면서 제주지역은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2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0일(오늘)은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이번 비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10mm로 비교적 적은 수준이다.

이날 기온은 아침 9-12도, 낮 14-16도로 평년(아침 12-14도, 낮 19-21도)보다 낮아 다소 쌀쌀하겠다.

1일인 내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순간풍속은 초속 15m(산지 20m)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여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민일보 1면**에서도 바람이 강해 물

결이 1.0-2.5m로 높게 일겠다.

이날 기온은 아침 8-13도, 낮 19-2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커 건 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말인 2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13-15도, 낮 기온은 19-21도로 평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일요일인 3일에는 다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

로 보인다. 강수 확률은 70-80% 수준으로 비교적 높으며 특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압골 발달 정도와 이동 속도에 따라 강수 시점과 양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조병관 기자**

(제민일보: 2026년 4월 30일)

○ 레드향 농가 한시름 놓았다...열과 피해보상-2면

레드향 농가 한시름 놓았다...열과 피해보상

농업정책보험 손해평가 적용

지역농협 통해 가입접수 개시
국지성 호우로 피해 잇따라
연합회 회원 중심 홍보 예정

열매의 껍질이 갈라지는 '열과' 피해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열과 피해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가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농식품부의 농업정책보험 상품 개선에 따라 올해부터 농업정책보험의 손해평가 시 레드향 4.30. 피해를 적용한다고 29일 제민일보 2

이에 따라 감귤(만감류)과 대파 보험 가입이 지역농협을 통해 시작됐다.

농업정책보험은 자연재해나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험제도로 그 중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량 감소 피해를,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이 겹쳐 농가 수입이 기준 이하로 줄었을 때 각각 보상한다.

올해부터는 레드향 열과 피해가 손해평가에 적용되는데 보험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모두에 적용된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등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감귤

과 만감류의 껍질이 갈라지는 열과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껍질이 얇아 열과 피해에 취약한 레드향의 경우 2023년 재배 농가의 25.8%, 2024년에는 38.4%가 열과 피해를 입었다. 특히 당시 서귀포시 지역은 42.8%, 대정 지역은 최대 74.7%에 달하는 열과 피해가 발생하는 등 농가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어야 했다.

하지만 열과 피해는 태풍이나 호우와 같은 명확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과실이 갈라지는 생리장해로 분류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농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다행히도 그동안 제주도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열과 피해에 대한 재해보상 방안을 요청한 결과 마침내 레드향 열과 피해가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

되면서 올해부터는 열과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다.

오병국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장은 "전날 레드향 연합회원들이 농업기술원 대강당에 모여서 레드향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제 막 적용되는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열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그동안 열과 피해에 대한 농가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이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연합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전개, 모든 레드향 재배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영 기자

(제민일보: 2026년 4월 30일)

○ 제주 마늘·양파 재배 줄었다-2면

제주 마늘·양파 재배 줄었다

올해 제주산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마늘·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4.30. 제민일보 2 제주 마늘 재배면적은 828

ha로 확인됐다. 마늘 재배면적은 2024년 1135ha에서 지난해 860ha, 올해 828ha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양파 재배면적은 955ha로 지난해 957ha보다 소폭 줄었다. 2024년 양파 재배면적은 1015ha였다. 윤승빈 기자

(제민일보: 2026년 4월 30일)

○ “수급 불안 예방” 주요 채소류 재배의향 조사-5면

“수급 불안 예방” 주요 채소류 재배의향 조사

제주도가 월동채소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농가 조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5월 한 달간 2026~2027년산 주요 채소류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의향 조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는 오는 8~9월 예정인 재배면적 신고제와 연계, 2026~2027년산 월동채소 수급안정 대책의 기
4. 30.
제민일보 5로도 쓰인다.

18개 채소류 품목 중 파종 전인 월동채소 12품목은 재배의향을, 파종 완료된 여름작물 6품목은 재배면적을 조사한다.

조사는 읍·면·동 담당자가 마을 이장·리사무장의 협조를 받아 농가를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로 진행한다. 읍·면·동별로 작물별 전체 농가의 10% 이상을 표본으로 추출해 조사할 계획이다. 고은리 기자

(한라일보: 2026년 4월 30일)

○ 제주 월동무 홍수 출하 해소되나-6면

제주 월동무 홍수 출하 해소되나

성산일출봉농협, 농식품부 출하조절시설 사업 선정

2028년까지 수급안정 위한 저온저장·가공시설 조성

월동무 주산지인 서귀포시 성산일출봉농협에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출하조절시설이 갖춰진다.

성산일출봉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8년까지 수급조절 시설을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설은 총 6000㎡에 저온저장고와 무 세척과 선별포장 작업장·가공작업장과 공용 업무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사업비는 총 100억원(국비 40억원, 도비 30억원, 자부담 30억원)이다.

성산일출봉농협은 이번에 추진하는 신규 출하조절시설과 기존 저온저장시설을 연계해 총 2000t 규모의 월동무 출하조절물량을 확보 운영함으로써 수급 상황에 따라 출하조절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산이다. 특히 성산일출봉농협은 전체 취급 농산물의 70% 이상이 월동무인 주산지 조직으로, 수급 조절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름철 가뭄과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와 작목 쓸림 현상으로 도내 월동무 재배면적이 5000ha 이상으로 고착화되면서 수급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생산량 대비 저장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시설도 노후화돼 집중 출하하기 물량을 분산·조절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

박명종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은 “이번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조성은 성산지역 월동무 재배농가의 오랜 숙원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4. 30. 한라일보 6 유통되는 월동무는 모두